

‘한국의 단청’ 광동해 지음



〈한국의 단청〉(하연문화사)는 한국 단청의 기원과 역사, 조형 양식, 문양의 구성 요소와 종류, 그 상징 의미를 탐구했을 뿐 아니라 실제 단청에 사용되는 안료, 도채법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은 격이 달랐고, 궁궐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이 중 사찰의 단청은 오늘날 한국 단청의 명맥을 이어오는 보인다. 사찰의 건물은 불전, 선원 대웅전 등의 건축 부위별 단청을 화보로 책 앞에 붙였다. 그리고 단청의 기원에서부터 도채법까지 그 동안의 단청의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단청 교과서, 안료·도채법까지 소개

목조건축물·동굴벽화·장신구 등 광범美 추구·날씨변화 따른 변형 막아

단청(丹靑)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비와 조화를 말한다. 하지만 단청이란 각종 안료를 사용하여 건물의 벽과 부재에 도채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더 넓은 의미로는 각종 조각상이나 공예품 등을 채색하는 행위나 서(書)·회(繪)·화(畵)의 개념을 망라한다. 따라서 예로부터 단청의 대상은 전통적인 목조건축물은 물론 고분이나 동굴의 벽화, 칠기, 공예품, 조각상,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특히 목조 건축문화에서

은 날씨의 변화로 목재가 갈라지고 비틀어지거나 썩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미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단청은 그 건물의 위엄을 더해준다. 같은 사찰에서도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과 스님들이 거처하는 요사채의 단청

보살전, 영산전, 판전, 조사전, 종루 등 다양하다. 바로 이러한 건물들에 한국단청의 모든 조형 양식이 장엄되어 있는 것이다. 문양면에서 사찰 단청의 특징은 불교의 이미지와 관련된 소재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종류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의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여기에 부록으로 단청 및 건축 용어 해설과 문양초 130여 쪽까지 수록해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단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은이는 동·서양화를 비롯해 단청, 불화, 벽화 등 불교미술을 공부한 광동해(동국미술인회 부회장) 씨. 값 5만원.

‘처용이 있는 풍경’ 김대식 글·사진



소설가이자 사진가인 김대식 씨가 〈삼국유사〉의 역사적 토대가 된 지역들을 돌아본 감흥을 글과 사진으로 엮은 사진기

이나 폐불 앞에서 서성이면서, 웅성했을 옛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은 소슬하면서도 행복한 체험이었다. 그런 경험 후에 〈삼국유사〉는 매번 새롭게 다가왔다"고 회고했다.

폐허가 된 〈삼국유사〉의 현장에 선 지은이는 일반인들이 눈여겨보지 않으면 지나칠 만한 곳들에 들보기를 틀어대고 역사여행을 떠났다.

경주 남산 탑골의 부처바위 주변에 있는 삼층석탑, 분황사

삼국유사 현장 돌아본 김용

행집 〈처용이 있는 풍경〉(대원사)을 내놓았다.

지은이는 〈삼국유사〉에 매료돼 5년 넘게 책을 읽었고 심지어 경주로 이사까지 했다. 그리고 황룡사터를 비롯해 절과 절터들, 경주 남산, 경주 주변의 왕릉 등 〈삼국유사〉의 현장들을 찾아 다녔다. 그는 〈삼국유사〉의 현장들은 대부분 폐허이다. 사라진 세월의 설핏한 김새라도 느낄 수 있을까 하여 폐탑

삼층석탑 뒤쪽 석조에 새겨진 추사의 글씨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또한 기존 확설에 대해 조심스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흔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처용의 얼굴을 찾아서”를 비롯해 ‘어느 탑의 상처, 그 기구한 사연’, ‘자장의 최후에 관한 추측’ 등 모두 22편으로 구성돼 있다. 값 1만2천원.

‘달라이 라마, 자유로의 길’ 달라이 라마 지음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초가 〈달라이 라마, 자유로의 길〉(이론과 실천)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은 마음을 변화시킬

중 그 첫 단계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행복을 바라고 고통에서 해방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모든 존재와 똑같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는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할 권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깨닫고 실천할 때 비로소 깨달음으로 가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며 보다 높은 삶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죽음·원생·업 등 교리 곁들여

수 있는 방법이다.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욕심이나 집착, 분노와 같은 망상으로 본다. 그리고 이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달라이 라마가 이 책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바로 망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들이다. 달라이 라마는 이런 망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또한 책은 티베트를 중심으로 불교의 가르침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죽음, 원생, 업, 사성제 등의 교리도 수행법과 함께 전한다. 특히 역사상의 여러 스승들의 사상과 그들의 일화를 적절히 연결시킴으로써 망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수행법에 대한 독자 들의 이해를 쉽게 해준다. 값 8천원.

스튜디오 다키임기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신이 부처라고 해도 그 말을 이해하지 않고는 부처임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유가(唯家) 수행자들은 삶의 고정된 틀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삶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 남겼는데, 세친 보살의 〈유식 30송〉이 그 가운데 하나다.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정화 스님 엮음, 장경각)는 재가불자들이 송광사 정화 스님을 모시고 〈유식 30송〉을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 ‘관계 속의 변화’가 앞으로 나타나고 더 나아가 ‘삶이 곧 삶’이라고 보는 것이 유식의 가르침이다. 이 책은 지식의 얽으로 끝내기 쉬운 유식의 어려운 용어들이 내면의 얽으로 다가오게 해준다.

지은이는 〈유식 30송〉을 10장으로 나눠 본문을 먼저 상세



유식 30송을 10장 분류 본문설명·질의·답변 한순간 깨달음 유도

하게 설명한 다음, 재가 불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한다. 한 재가 불자가 묻는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유식으로 설명될까?” 이에 대해 정화 스님은 “그렇습니다. 유식이란 ‘삶의 다른 말’로서 인연이나 연기와 같은 말입니다. 유식은 삶의 부분이 아니라 삶 자체입니다.”고 설명한다.

스님은 특히 유식성(唯識性)을 통한 깨달음의 완성을 강조하는데, 유식성이란 ‘현전하는 부처’ 즉 우리 자신들로서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은 잘나고 나는 못났다. 나는 잘나고 다른 사람은 못났다 것은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활동하는 매순간마다 그대로 부처님 자신이며, 유식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생활 속의 유식 30송’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한순간 깨어남으로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값 8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재방역사아문집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est-selling books.

도서 안내: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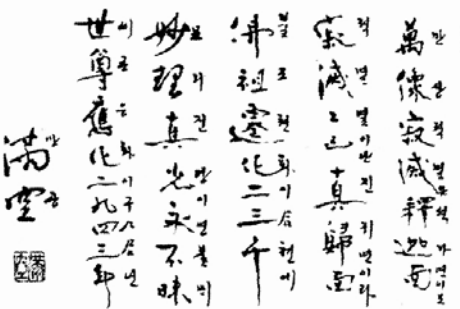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숭산 선사 공안집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영원한 대자유’ 헤자 스님 지음



에서부터 융성·한암·효봉·경봉·목담·전강·정담·향곡·성철·탄허 스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근·현대 선승들의 오도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볼 뿐 달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달을 가리키는 사람조차 없다면 달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된 선승 33인의 삶은 바로 진리의 달을 보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 특히 환희에 찬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처(一歸何處)’란 화두로 깨달음을 얻은 만공스님이 직접 쓰신 계승.

선승 33인의 법문·오도송

오도의 순간, 열반을 앞두고 생사의 곱메기를 벗는 모습, 부드러운 대화 속에 살붙살조 하는 법거랑, 중생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법문, 가슴 뭉클한 일화 등은 단순한 손가락 이상의 감동으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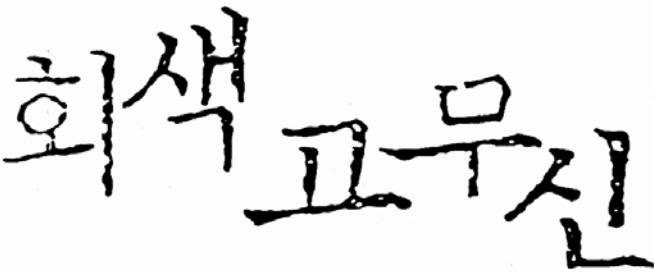
지은이 헤자 스님은 역대 선

승들의 행장을 정리하는 것을 미혹의 때를 벗는 일이라고 말한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중생들이 맑고 밝은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한 선승들의 삶이 수행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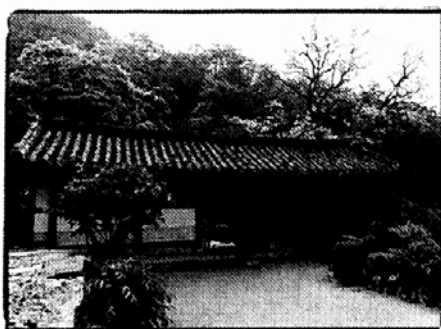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 문종의 자료와 그동안 출간된 책을 토대로 3년여 간의 준비 끝에 근·현대 한국불교의 선맥을 이어온 고승열전 1차분을 펴냈다. 끝이 열산 비룡·탄성 스님 등 최근 입적한 스님들도 책으로 묶어 펴낼 계획이다. 값 각권 9천원.

출판 담당=김중근 기자 gamma@buddhapia.com

청담 스님의 말, 성철 스님의 제자인 묘엄 스님 이야기



불교서점 예시아문 베스트셀러 1위



묘엄 스님 구술·윤창광 엮음 | 신국판 | 356쪽 | 값 9,000원

성철 스님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사리!

청담의 말, 성철의 제자! 세속의 것대로 보면 왕대발 소속이다. 그러나 출가 수행이 배경이나 그들로 성취될 수 있는 여정이던가? 아버지와 스승의 이름은 평평한 유산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벽이다..... 노비구니 스님이 조곤조곤 구술한 극적인 일화와 수행의 역정을 겪조 있게 꾸민 원로 방송작가 윤정광 선생의 솜씨도 돋보인다. 잔잔한 웃음이 일고 가끔씩은 아리한 감동이 목구멍을 막는다.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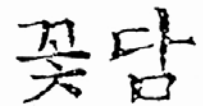
속인들이 잘 모르는 절간 생활의 면모, 그 가운데 인듯 비치는 사람살이의 푸근한 냄새,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구도행 등이 담담한 필치로 그려진다. 한국일보

묘엄 스님은 14살에 청담 스님에게 보내져 청담의 절친한 도반이었던, 전 종정 성철 스님을 스승으로 출가했다. 그 뒤 향곡, 윤허, 경봉, 동산, 자운 스님 등 근현대 불교의 대표적인 고승들의 재직과 자애로운 가르침을 받아 이 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사로 성장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엔 근대 고승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다. 한겨레신문



전화(02)588-0833 팩스(02)588-0835 www.sigongsa.com 시공사

푸른 섬 비진도의 작은 스님 이야기 |



외딴 섬 스님이 일구는 따뜻한 삶의 뜰

비구니 스님이 비진도 섬 생활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따뜻한 시선으로 소박하게 담아 낸 산문집.

해인 스님 지음 | 국판 변형 | 237쪽 | 값 7,500원